

SPORTS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아시아 돌풍’ 광주FC, ACLE 8강 신화 쓴다



광주체육회-남부대, 지역발전 MOU
우수 인재 발굴·일자리 창출 등 집중

광주시체육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남부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체육회는 11일 오후 2시 남부대학교 총장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조준범 남부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체육회-남부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RISE 사업 협력이란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체계를 뜻한다.

시체육회는 학생인구 감소로 취학 및 진학 등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남부대의 이번 RISE 사업 추진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뜻을 모으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자 약속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남부대의 RISE 사업이 시민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발전과 체육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대는 복싱·사격·당구 등의 엘리트 선수 육성, 광산남부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시민건강 증진 도모 등 체육 분야에서도 앞장서는 등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송원대, 배드민턴팀 창단
감독 최상원·코치 한수현

송원대학교가 지방 체육 균형 발전과 대학스포츠 활성화, 엘리트 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오며 학교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11일 송원대에 따르면 최근 송원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배드민턴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수태 송원대 총장을 비롯해 정대훈 학교법인 송원대 사무처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 홍성길 광주시배드민턴협회 회장·박철희 부회장, 임방언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 이상훈 광주시 남구 배드민턴협회 회장,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또 선수단과 학생, 학부모들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원대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은 최수태 총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부단장은 홍성보 스포츠데이터 분석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감독에는 최상원, 코치는 한수현이 선임됐다. 선수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송원대는 기존의 야구, 세팍타크로, 주짓수팀과 함께 배드민턴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KUSF(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지원을 통해 선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국대회 입상 및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대학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게 됐다”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 전국대회와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교와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inus@

오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 비셀 고베와 2차전

시도민구단 최초 도전

아사니·오후성 등 주목

프로축구 광주FC가 비셀 고베를 상대로 새역사에 도전한다.

광주FC는 1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2차전 홈 경기를 펼친다. 광주는 앞서 부리람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스테이지 최종전 결과와 무관하게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구단 창단 이래 첫 ACLE 진출에 성공했고, 16강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더욱이 16강 진출은 아시아 무대 내 수많은 강호를 누르고 돌풍을 일으키며, 올해 K리그 팀 가운데 유일하게 이뤄낸 성과로 의미가 더욱 깊다.

하지만 광주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이정호 감독을 필두로 한 선수단은 한 치의 양보없는 승부를 통해 당초 목표로 언급했던 8강에 올라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싣겠다는 각오다.

특히 광주는 8강 진출에 성공할 시 구단 최초는 물론,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의지가 남다르다.

광주는 상대인 고베를 상대로 지난 리그 스테이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2차전에 출전하는 광주FC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 4차전과 직전 맞대결인 16강 1차전에서 0-2 패배를 떠안았다. 다만 두 경기의 내용은 분명 달랐다. 고베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리그 스테이지와는 달리 16강 1차전에선 실마리를 찾았다.

광주는 지난 1차전 경기에서 고베와 대등하게 맞섰다. 전반 이른 시간 먼저 2골을 내줬으나 후반전은 광주의 흐름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실제로 점유율, 패스 시도, 패스 성공 횟수 등에서 앞선데다 슈팅 숫자 자체도 2배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를 통해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분명한 교훈과 자신감을 얻었고 1차전 경기에서 부족했다고 느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했다.

광주는 ACLE 득점 선수를 수성 중인 아사니를 비롯해 이번 시즌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는 오후성, 신임상 미드필더 주세종의 활약이 주목된다. 특히 주세종은 지난 FC안양과의 데뷔전에서 10분 남짓 활약했음에도 정확한 패스 연결과 안정적인 조율로 국가대표급 미드필더의 면모를 보여줬다.

광주는 당초 지난 9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주말 경기가 있었으나 연명의 일정 조정으로 인해 22일로 연기됐다. 리그·ACLE를 병행하고 있는 광주 선수단은 시즌 시작 이래 가장 긴 시간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 시간을 확보했다. 휴식을 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린 광주가 1차전 패배를 뒤엎고 구단 최초이자 시도민구단 최초 ACLE 8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장단 17안타 대폭발’ KIA, 시범경기 ‘첫 승’

NC에 17-10 승·양현종 4이닝 1실점 쾌투

박찬호·한준수 3점 홈런·이우성 만루포도

‘다랜딩 챔피언’ KIA타이거즈가 활화산 타선을 앞세워 시범경기 첫 승을 따냈다.

KIA는 11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시범경기 4차전에서 NC다이노스에게 17-10 승리를 거뒀다. 앞선 3차전까지 1무 2패를 기록했던 KIA는 이날 17안타를 뽑아낸 타선의 힘으로 시범경기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찬호(유격수)-최원준(중견수)-김선빈(2루수)-나성범(우익수)-최형우(지명타자)-위즈덤(1루수)-윤도현(3루수)-김태균(포수)-박정우(좌익수)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대투수’ 양현종이 나섰다. 총 65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4이닝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쾌투했다.

양현종은 1회말 두 타자 연속 뜬공으로 돌려세운 뒤 후속타자 삼진으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KIA는 2회초 선취점을 올렸다. 2사 1루 상황 타석에 오른 박정우가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는 박찬호. 그는 상대 초구 143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3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박찬호



한준수



이우성

2회말 역시 무실점에 성공한 양현종은 3회말 위기를 맞았다. 상대 선두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이어 두 타자 연속 뜬공으로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늘렸지만, 상대 김주원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1점을 내줬다.

하지만 4회초 KIA가 다시 격차를 벌렸다. 4회초 2사에서 최원준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를 터트렸다. 이후 김선빈 대신 서건창이 올라와 우전 안타를 생산했다. 후속타자 나성범은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2타점 적시타를 폭발시키면서 경기는 5-1이 됐다.

6회초에는 또 다시 득점이 터져 나왔다. 선두타자 서건창 볼넷 이후 정해원이 우중간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다. 후속타자 이우성

삼진 이후에는 변우혁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타석을 이어받은 윤도현은 땅볼로 출루했고, 그 사이 변우혁이 아웃됐다. 2사 1-3루. 한준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때려내면서 정해원이 홈 플레이트를 밟았다. 박정우 타석에서는 상대 포크까지 나오면서 윤도현 역시 홈으로 들어왔다.

KIA는 6회말 1점을 내준 뒤 7회초 빅이닝을 만들었다.

7회초 1사 김석환과 서건창, 정해원이 나란히 볼넷으로 출루했다. 후속타자 이우성은 상대 2구째 146km 직구를 그대로 걸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포를 뽑아냈다. 변우혁과 윤도현 안타 이후에는 한준수 역시 상대 4구째 143km 직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가르는 3점 홈런을 폭발시켰다.

KIA는 7회말 5점을 추격당하기 했지만, 8회초 다시 1점을 추가하면서 16-7로 압도적 리드를 유지했다. 9회초에는 2사 1-2루 상황 정해원의 땅볼을 상대 유격수가 잡아내지 못했고, 상대의 포크까지 더해지면서 1점을 따냈다. 이후 9회말 상대에게 3점을 내주면서 경기는 17-10으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스타 플레이어 총출동’ 20일 KBO미디어데이

롯데호텔 월드서·팬페스트 존 운영 등 이벤트 풍성

프로야구 개막을 알리는 ‘2025 신한 SOL Bank KBO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오는 20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KIA 나성범·김도영, 삼성 구자욱·강민호, LG 박해민·임찬규, 두산 양의지·김택수, KT 장성우·강백호, SSG 김광현·박성만, 롯데 전준우·윤동희, 한화 채은성·김서현, NC 박민우·김형준, 키움 송성문·이주형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된다.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KBO리그 마스코트를 활용한 프레임이 들어간 포토존, 인생네컷 부스 운영, 포토월

기념 촬영, 응원팀 우승 시 공약 작성, 스케치북 응원 문구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경쟁 선물도 준비됐다.

공식 행사에 앞서 지정 좌석 입장권을 소지한 팬 210명을 대상으로는 10개 구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사인회가 개최된다. 사인은 미디어데이 입장권 신청 시 선택한 1개 구단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 2025 신한 SOL Bank KBO 미디어데이는 총 2부 행사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10개 구단 감독들의 출사표와 올 시즌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올 시즌을 앞둔 소감 발표와 미디어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후 팬들이 KBO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팬들이 남긴 질문을 선수가 직접 답변하는 ‘왓츠인마이팬심’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구단당 1개씩 선정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 2기 모집 ‘순항’

44명·5500만원 후원금 조성·100명·1억원 목표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후원조직 모범 모델인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의 2기 모집이 순항 중이다.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는 민간의 개인·기업 후원인 100명 모집 및 1인 100만원의 후원금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후원 조직이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 1기’ 100명

을 결성해 총 1억8000만원의 후원금 조성을 한 바 있다.

올해 시장애인체육회는 정선교 추진단장(㈜대명외식산업 대표)을 중심으로 한상득(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고문, 박상규(㈜경서 대표이사), 정형렬(㈜서이엔씨 대표이사) 부단장, 최점미(㈜하니로유통 대표이사), 윤진영(㈜죽연 대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후원조직 모범 모델인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의 2기를 모집한다.

표, 정진웅(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사무처장), 김현성(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8명을 ‘발전위원회 2기 추진단’으로 결성했다. 4월까지 발전위원회 2기 위원을 모집해 총 1억원을 후원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현재까지 44명이 발전위원회 2기 위원으로 참여해 5500만원을 모금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